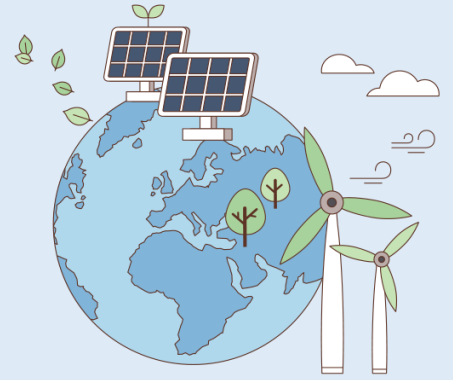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협력에 10년간 840억원 투자 *뉴시스*
- 자발적 탄소감축 마켓 '팝플' 공개..기업·개인 배출권 참여 *머니투데이*
- 롯데칠성, 국내 식음료업계 최초 RE100 가입 *매일경제*
- 블루·청록·그린... '청정수소 생산' 기술 확보에 쟁점 *이데일리*
- 이마트는 왜 신선식품을 '픽'했나 *비즈니스위치*
- 사조대림, 제품 패키징 개선으로 친환경 경영 박차 *이코노미리뷰*
- 효성중공업,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속도... 부산시와 맞춘 *더팩트*
- 미국대두협회가 인증한 차세대 식용기름... 롯데푸드 '고올레산 대두유' 눈길 *녹색경제신문*
- "기후위기 대응에도 석탄발전 올해 사상최대" IEA *파이낸셜뉴스*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CJ제일제당, 'C바이오사이언스' 출범... 레드바이오 사업 가속화 *한국일보*
- 주장 엇갈린 'SK실트론 사건', 어디부터 시작됐나 *비즈니스위치*
- 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 민영화' 성공... 지배구조 개편 바람 부나 *녹색경제신문*
- LG그룹, LG와 LG화학의 기업분할에서 공통점은? *글로벌 이코노믹*
- 한샘, 이사에 송인준 IMM PE 대표 선임... 경영권 매각 마무리 *뉴시스*
- 이번엔 쿠팡... 'M&A 대식가' 된 GS리테일 *한국경제*
- 네이버, 이지케어텍 투자 급물살... "지분투자 협상 재개, 디지털 헬스케어 포석" *전자신문*
- 통합 지주사 이사회도 장악... 셀트리온그룹, 강남 '서진석' 체제 굳어지나 *이코노미스트*
- 현대차, 세대교체로 '확' 젊어졌다... 핵심 신기술 사업 분야에 '충력' *녹색경제신문*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MZ세대 직원' 잡아라... 성과공정에 쫓긴 기업들 *한국경제*
- "ESG가 기업에서의 성평등 해법" *매일경제*
- CJ대한통운, 한국기술사회 기술자문·안전교육 받는다 *뉴스1*
- 노동입법 두고 경영계 또 패싱한 국회... 재검토 요구 빗발쳐 *아이뉴스24*
- '여수 폭발참사' 찾은 고용부 장관 "책임자 엄중 처벌" *뉴시스*
- 주 4일 근무, 탄소발자국 30% 절감효과... 적게 일하고 환경도 지키고 *녹색경제신문*
- "유럽서도 축소·폐지 분위기"... 강성노조 악용땀 일자리 줄수도 *디지털타임스*
- 공장에 로봇 들이자 제조·단순 일자리 갈수록 감소 *이코노미스트*
- 한국타이어 노사 협상 타결... 26일 만에 조업 재개 *노컷뉴스*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글로벌 투자자, 생물 다양성 대응 본격화 *한경비즈니스*
- 사학연금,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기관' 선정 *파이낸셜뉴스*
- "美 기업들, 기후변화로 내년 16조원 손해 볼 것" *조선비즈*
- 커진 ESG 관심 반영하듯... 우수기업도 늘었다 *매일경제*
- 주택금융공사, 2022년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지속 *더벨*
- 스타트업에 'ESG' 적용 가능할까? *블로터*
- 세계 19개국 기관투자자, 글로벌 ESG 표준 의무화 찬성 '89%'... "코로나19 영향, ESG 성과 중요" *녹색경제신문*
- 기업의 책임 강화하는 글로벌 물결... 실사구시 대응만이 살길 *한국경제*
- 미미한 ESG투자 실적 질타, 석탄발전 지원 '제동' *더벨*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ISSB 공시 기준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

- 대한상공회의소 21.12.13

A

- IFRS재단은 ISSB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이 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할 것을 공식 발표함. 재단은 기후관련 사안부터 우선하여, 주요 기준제정기구들과의 통합 및 협력 하에, 투자자 중심의, 국제기준선(global baseline)이 되는 단일의 기준을 제정한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함
- 제정될 새로운 공시 기준은 국제증권감독기구, 금융안정위원회 등 핵심 국제기구와 G7 및 G20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동 공시기준이 적용, 수정, 의무화 등에 대하여 각국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선 접근법을 택하였고, 결국은 각국은 국가별 법률, 정책, 규제 등과 상호보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ISSB에 의해 국제 기준이 제정되면 국내에도 도입되고 적용될 것임. 다만,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첫째, 핵심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예를 들어, IOSCO가 ISSB 공시기준의 도입 및 이행을 회원국에 강제할 가능성, 주요 선진국(EU, 미국, 영국 외)들이 국제 기준을 공시체계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주목하고 검토해야 함
- 둘째, 국내 규정 및 제도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함. 투자자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유용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요가 존재하므로, NGO나 지역사회, 정부 법령 및 규제 등과 어떻게 융화되어 국제 기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함
- 셋째, ISSB 공시기준을 통한 정보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이며, IFRS 회계기준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짐. 따라서 회계정보와의 연계성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임
- 넷째, ISSB의 기준 제정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 국제 기준에 국내 경영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ISSB 기준 공개초안 발표 등의 기준 제정 중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함
- 다섯째, 기업들의 수용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공시 기준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비용-효과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 산업, 영향 등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 및 특징

- 대한상공회의소 21.12.13

A

- 지난 11월 한국생산성본부는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기업의 상대적인 ESG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됨.
- DJSI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지수임.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별 평균·최고 점수와 비교할 수도 있어 기업의 상대적인 ESG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됨
- 2021년 평가에서는 322개 기업이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었고, 이 중 국내 기업은 21개임. DJSI Asia Pacific 지수에는 153개 기업이 편입되었는데 국내 기업은 32개였음. DJSI Korea 지수에는 43개 국내 기업이 편입됨
- 2021년 평가 결과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ESG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기업의 평균 점수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76.5점), 국내 기업은 소폭 상승함(70.9점)
- 글로벌 기업과 비교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특히 국내 기업들은 환경정책 및 시스템(83.1점), 개인정보보호 (70.7점)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이들 항목에서는 글로벌 기업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항목에서 국내 기업들은 대외공개 정책 수립, 데이터 공시, 시스템 인증 등을 통해 성과 개선이 가능했음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36.0), 리스크 관리(62.0), 인재 유치 및 유지(65.3), 기후변화 전략(74.4), 윤리강령(75.3) 등의 항목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성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항목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점수차가 각각 26.4점, 16.0점, 7.0점, 10.2점, 8.2점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속가능경영 평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선박 시장 현황 및 전망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2.13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8년 대비, '30년까지 40%, '50년까지 70% 감축하는 안건을 채택함(21.6월). '08년 세계 해운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16백만톤으로 추정됨
- 상기 안건의 세부 규정에 따라, 현재 운항 선박의 80% 이상이 규제를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 선박의 감속운행이 불가피하고, 저연비 노후선의 경우 운항비용 증가로 폐선 압력이 가중됨
- 선종별, 속도 구간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정속 운항 속도 대비 선속을 10% 낮추면 연료 소모가 20% 이상 감소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듦
-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선박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배출 오염물질 저감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선박의 등장이 가속화 진행 중임
- 친환경선박은 친환경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임. 상기 정의에 따라, 친환경선박은 1) 친환경에너지 추진 선박, 2) 오염저감·고효율 선박, 3) 전기추진 선박, 4) 하이브리드 선박, 5) 연료전지 추진선박으로 분류됨
- 친환경선박 중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가장 크고 대형선 건조, 수출 위주의 국내 조선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박은 친환경에너지 추진선임
- 현재 친환경에너지 추진선 중 LNG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가 가장 많으며, '35년 전후에는 세계 건조 선박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1년 기준 친환경선박 수주량(16.2mCGT) 중 친환경에너지 추진선 수주량은 15.5mCGT로 친환경선박의 94.2% 차지
- 이 중, 주력 선박은 LNG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에너지 추진선 수주량의 67.7%를 차지함. LNG 연료는 기존 선박 연료유 대비 황산화물(SOx)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 산화물(NOx) 배출이 최소 25%, 이산화탄소 배출은 25% 저감 가능
- 다만, LNG는 화석연료에서 생산하는 저탄소 연료로써 탈탄소화에는 한계가 존재함. 현재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용하는 선박의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이르면 '26~'27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은 '24~'25년 엔진 개발, '26~'27년 상용화되어 '35년 이후에는 LNG 연료 추진선을 대체하는 주력 선박이 될 것으로 전망됨. 암모니아 연료는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으며,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등을 사용하여 배출 저감이 가능함

E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 전국경제인연합회 21.12.12

- 수소생산, 저장·운송기기, 활용 분야의 국내외 주요 기업 총 76개 사를 선정 및 분석함 (매출액, CAPEX는 2020년 기준. 환율은 12.2일 자 적용, 단위 10억 원)
- (생산) 대표기업으로는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에어 리퀴드(프), 그린수소는 넬 (Nor, AEC), 발라드파워(미, PEM), ITM파워(영, PEM), 블루에너지(미, SOEC) 등. 한국기업의 경우, 다수의 대·중견기업이 부생수소를 생산 중이며, 블루수소는 전무, 그린수소는 이엠코리아(알칼리), 엘컴텍(고분자전해질막) 등이 생산 또는 관련기술 개발 중임
- (저장용 수소 생산) 기체·액체·액상·고체 등 네 가지 형태로 저장·운송. 대표 기업은 에어리퀴드, 린데(액화), 하이드로지니우스(액상), 젠셀(고체) 등이 있음. 한국기업의 경우, 효성중공업이 린데와 합작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중이며, 액상유기수 소화물(LOHC) 방식 기업은 중견기업인 제우스(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이 기술을 확보함
- 한화솔루션이 시마론(미,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수소탱크 분야 역량 강화 중이며, 효성첨단소재도 탄소섬유 활용 수소탱크 생산 추진 중임
- 수소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가치 확보,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부품(소·부장) 국산화율 제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함
- 맥킨지는 2050년 수소시장 규모 2조5천억 달러 전망함('17부터 연평균 6% 성장). 2050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분야 전략 추진을 위해 전 세계 900억 달러 규모의 공격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추산됨(IEA)
- 전 세계적으로 수소 분야 R&D 투자 추이는 2000년대 후반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 들어 2015년까지 부진(관심도 저하). 2017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임. 특히 최근 투자 증가세의 배경에는 연료전지 기술의 성숙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기타 수소 생산, 최종 사용(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반영함(IEA)
- 핵심기술의 대표적인 대리변수(proxy)인 특허를 살펴보면 주요 6개국 (중, 미, EU, 일, 한, 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임
-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 1위 중국, 미국, EU, 일본 순. 연도별 특허 수에서는 '20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4위로 상승함
- '22년 예산안(12.3 국회 통과)의 주요부처 수소예산이 증액 및 신설되었으나 프로젝트의 중요성, 수소경제 로드맵 달성 기여도 등 감안 시 미흡할 것으로 판단

E

해상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해사산업 대응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1.12.15

- 해상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해사산업계에 있어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 IMO는 2050년까지 해상 탄소중립 실현 목표 하에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 IMO는 2018년,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2008년대비 50% 저감하는 탄소중립 실현 초기 전략과 계획을 채택함
-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EEXI와 CII 등의 강경 조치로 저효율 노후선과 같은 온실 가스 다량 배출 선박을 압박하고 퇴출을 유도함. 추가적인 시장기반조치도 논의 중이며 선박의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함
- (EU) 최근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해운 규제를 추진함. EU는 2023년 역내 항만 기항 선박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의무화함
-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집약도를 2020년 대비 75%까지 저감하는 "EU Fuel Maritime" 조치를 연료 생산과정의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well-to-wake 기준으로 시행 이들 조치는 선박 시장에 다중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노후선 교체, 무탄소 연료 개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수소가 무탄소 연료로서 자리잡고 LNG가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수소에 대한 많은 기술적 문제와 LNG의 화석연료로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높음. 다른 모든 대안들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 (메탄올) 기술적 과제는 거의 없으나 그린 메탄올의 공급 가능성이 가장 큰 난제임.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한 Maersk는 자체 투자를 통한 자체 연료 조달 계획임
- (암모니아) 무탄소 연료로서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되나 아산화질소 배출, 연료의 독성, 그린 암모니아 경제성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 2024년을 전후하여 엔진개발 완료가 기대되나 암모니아 연료 단독 사용이 아닌 화석연료를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 엔진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 탄소 배출 예상
- (탄소포집) 탄소포집과 저장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책으로서 일정 비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성과 충분한 저장장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이미 육상에서 저감 대책으로 사용중인 탄소포집과 저장(CCS)은 선박에서도 신조선 및 현존선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는 새로운 신조선 수요 창출 기대
- 다만, 포집비용 등에 대한 경제성과 육상 및 해상 포집 탄소에 대한 충분한 저장장소 확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수소) 수소는 장기적으로 무탄소 선박 연료로서의 궁극적 대안으로 기대되나 선박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연료이며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있음
- 수소는 영하 253°C의 초저온에서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연료탱크의 크기가 기존 석유계 대비 7배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등 연료로서의 활용이 쉽지 않음. 수소 연료는 내연기관보다 연료전지의 효율이 높으나 연료전지는 가격, 무게 및 부피, 짧은 수명에 따른 잦은 교체 등 난제들이 남아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실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술전문가들도 선박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의견부터 LNG나 암모니아로부터 분리한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15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견해 등 엇갈린 전망을 제시함
- 해운업계는 오랜 불황으로 인한 재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후선박의 교체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나 탄소중립 대안들의 불확실성으로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는 상호 소통 없이 상대방 업계가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중임. 기자재업계의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 해외 경쟁국들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효율적 개발 체제로 대응함.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기자재사, 조선사, 해운사, 해사기관, 연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해사클러스터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통합적 전략수립
- 국내 해사업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일본 해사클러스터를 모델로 하는 한국형 "해사협력기구" 구성 필요. 협력기구는 상설 조직으로 조선기자재사, 조선사, 국내 및 해외 해운사, 해외 에너지사, 연구 기관, 해사기관 등 폭넓은 범위의 기업과 기관 참여가 필요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을 위한 조정 역할 수행 필요
- 협력기구를 통한 논의와 협력으로 각 대안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미래 전략 수립, 협력 연구를 통한 효율적 연구개발 방안 추진 등 필요
- 새로운 기술 적용 시 실증선 제작과 운영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을 통한 방안 모색과 협력 연구사업에 한하여 실증선 제작 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별조치 필요
-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조선사에 대한 연구 지원 필요. 협력기구를 통한 선박용 청정 연료 생산과 보급 방안도 모색 필요. 기술 부문 외에 금융, 법률 및 제도, 비즈니스 모델, 안전 등 비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 활성화도 필요

E

E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시장 동향

- KOTRA 21.12.06

-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ASEAN 국가 중 가장 큰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수요 또한 높은 성장이 예상되나, 개발 실적은 부진한 상황임
- 약 464GW로 추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이론적 잠재 보유량 대비 실제 활용(발전 용량)은 10.5GW(2.3%)이며, ASEAN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가장 높은 베트남(35.6GW) 대비 30% 수준에 불과함
-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2.7억명)이며 최근 10년간 5~6%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다른 동남아 국가 대비 낮은 수준임
- 정부는 전체 전력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년까지 23%, '50년까지 31%를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나 21년 기준 1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이 낙후된 지역에 있어 인프라 등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데다 전력 생산 원가 대비 낮게 형성된 전력 구매계약(PPA) 단가로 인해 투자가 입장에서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
- 정부는 법, 제도 보안을 통해 전력 가격 체계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인센티브 마련 추진 중임
- 현재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원별로는 수력(58.5%), 지열(20.4%), 바이오(18.2%) 순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태양광 및 풍력은 최근에서야 개발되기 시작
- 우리 기업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한 수력발전 분야 위주로 진출해왔으나, 최근 지열, 바이오 매스 분야에서도 활동이 식별됨
- 태양광, 풍력은 아직까지 한국 기업 수주가 저조한 분야이나 정부의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수주 증가 가능성이 높음
-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전력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우리 기자재 수출 관점에서도 잠재 시장임
- 정부 규정에 따른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달이 어려운 기자재는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등 풍력, 태양광, 지열 분야 국내 제품 수출실적이 소량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발주처 또는 EPC 기업의 벤더 리스트에 등록과 같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 기회 발굴이 필요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국제표준 인증 획득이 중요

세계에 K-농업을 재배한다: 스마트 농업시대, 수출산업화 방안

- 한국무역협회 21.12.15

S

- 농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밀농업 시장은 2019년 55.6억 달러에서 2026년 128.4억 달러로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며, 이에 글로벌 농업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주요 농업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미약한 편임. 한국 식량 자급률은 2019년 45.8%로 2000년 55.6%에서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 적자액은 2020년 131.7억 달러를 기록함
- 식량안보, 환경보존,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서 농업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혁신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새로운 무역성장 동력을 찾는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 기업과 농가들은 농업 활동 전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 분야는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에 성공했고, 농약비료 등 농투입재 분야는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또한 생산기술 중심에서 유통, 가공/포장 등 다양한 농업 후방산업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음. 현재 우리 정부는 전북 김제, 경북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국내 농업 혁신 및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이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단순 농식품에서 전후방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자재, 플랜트, 기술, 서비스, 브랜드 수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하며, IC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농업 분야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우리농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먼저, 종자, 비료, 농약 분야는 미국, 중국, 독일 기업이 세계 시장 매출의 70%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이므로 차별화된 품종 개발, 친환경 기술 등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 수출은 작물에서 관련기술,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패키지 수출을 고려해야 함. 품종, 농자재, 농기계, 재배시스템을 연계하고, 현지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을 거쳐 수출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의 스마트 농업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 밸류체인 단계별 IT 시스템과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농업 데이터 관리 및 솔루션 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농업은 글로벌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 막 진입한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5G, IoT를 포함한 디지털기술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 U A S

iShares MSCI USA SRI UCIT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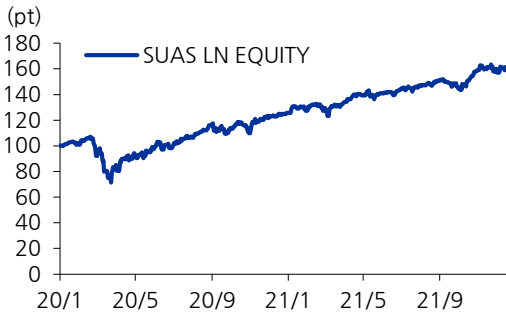
- MSCI USA Index 편입 종목 중 석탄 등 화석 연료 추출, 발전, 및 매장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및 MSCI ESG Score 'A' 미만 기업 스크리닝
- 이후 각 섹터별로 유동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해당 섹터 내 25% 비중까지 편입
- 섹터별로 편입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재차 유동 시가총액 가중을 하여 지수 비중 결정. 단, 개별 종목 비중 제한(최대 5%)을 두고 있음

ETF 개요

티커	SUAS LN EQUITY
상장일	2016-07-12
운용사명	iShares ETFs/Ireland
총보수율(%)	0.2
기초지수	MSCI USA SRI Reduced Fossil Fuel Index
가중 방식	Modified Float Adjusted Cap
주당 가격(달러)	13.7
보유종목 수	138
시가총액(백만달러)	8,940
시총/전략/지역	Large-cap / Blend / U.S.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7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0.5	-0.7	7.3	27.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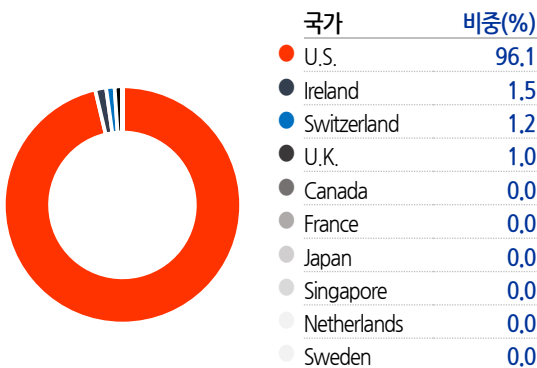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7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HD US	홈디포	405,144	4.5
MSFT US	마이크로소프트	2,431,084	4.3
NVDA US	엔비디아	695,025	4.1
TSLA US	테슬라	936,547	3.8
DIS US	월트디즈니	270,394	3.6
CSCO US	Cisco Systems	254,996	3.4
KO US	코카콜라	249,360	3.2
PEP US	펩시코	232,700	3.2
LOW US	로우스	167,150	2.3
RUN US	Sunrun Inc	8,900	2.8
합계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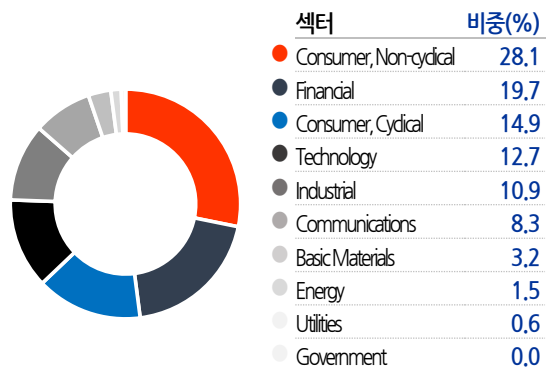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7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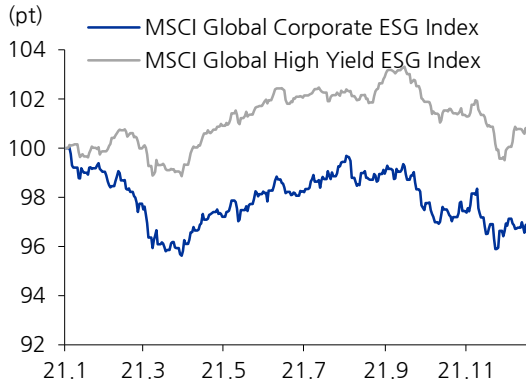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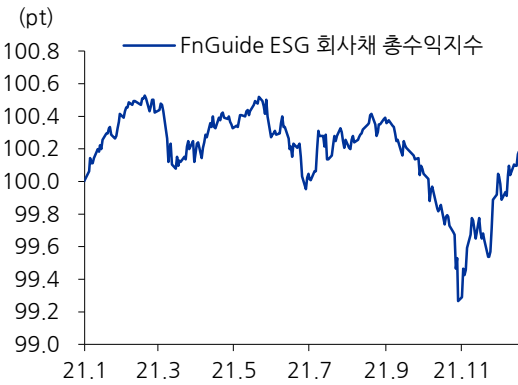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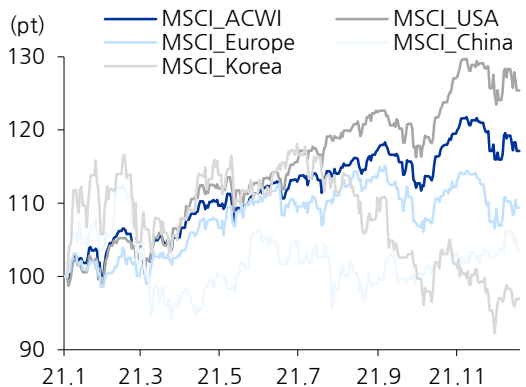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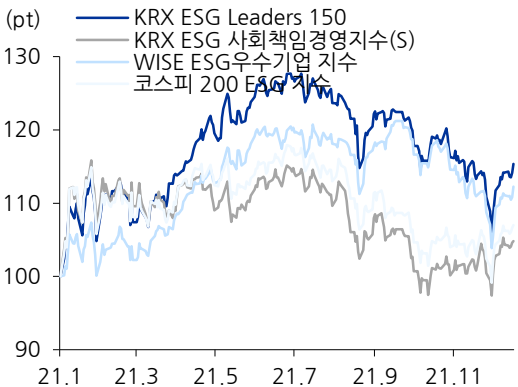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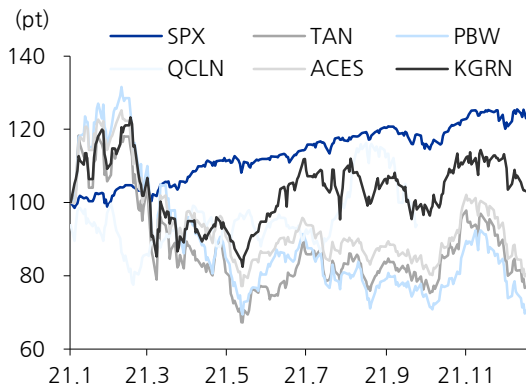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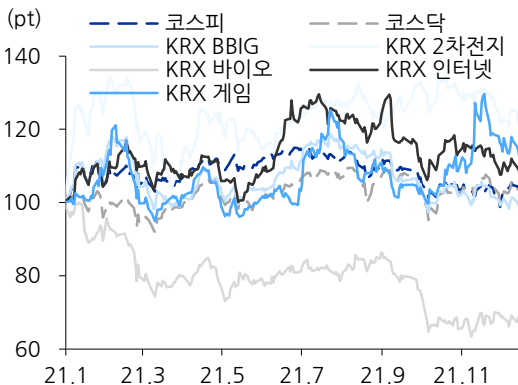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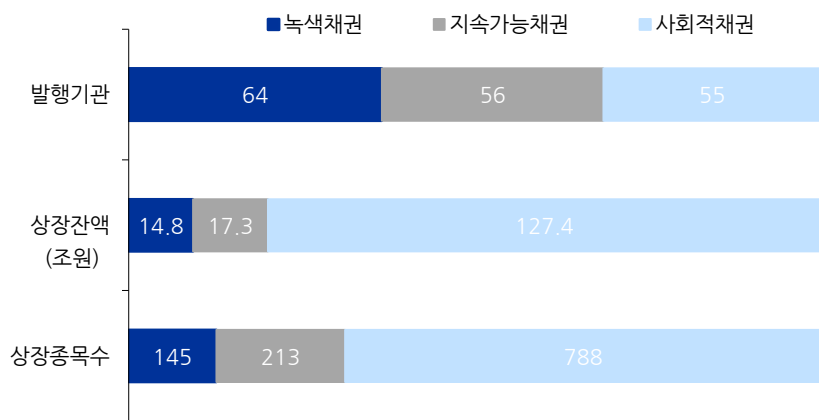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55 회 3012-16(사)	2021/12/17	2.039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20(사)	2021/12/16	2.169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9(사)	2021/12/14	2.33600	30,000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